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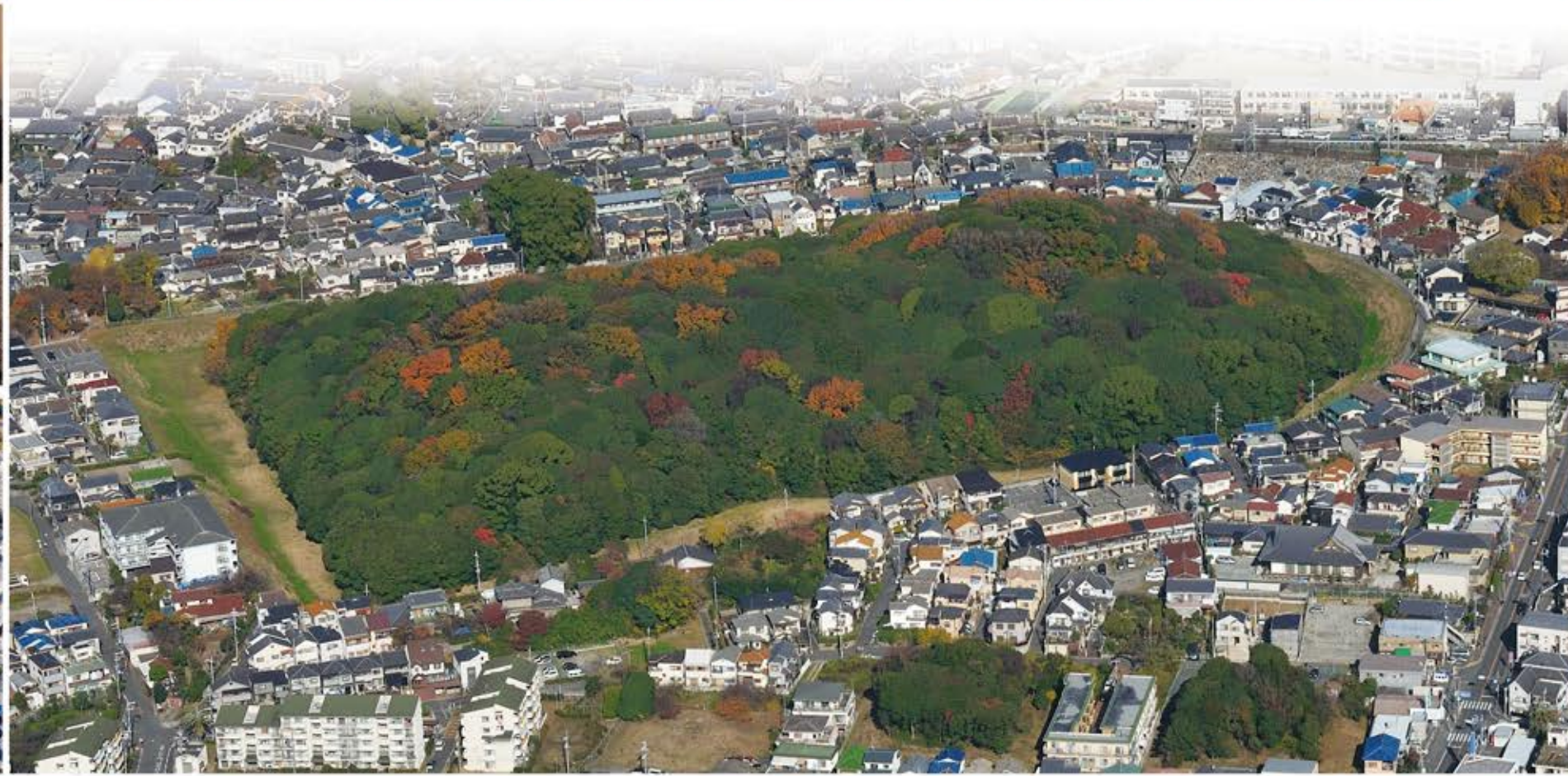
세계문화유산을 오사카에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과 생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자연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귀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보호하는 것이 세계유산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은 1,500여 년 동안 인간의 생활과 함께 수많은 위기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이 보물을 인류가 공유할 유산으로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의 '현저한 보편적 가치'

다양한 분묘군

일본열도에는 16만기가 넘는 고분이 있습니다. 고분의 형태나 크기의 다양성은 피장자의 생전 지위나 출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각지에서 전방후원분을 비롯한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분묘가 축조된 것이 고분 시대 문화의 최대 특징입니다.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에는 다양한 분형(전방후원분, 가리비형분, 원분, 방분)과 크고 작은 규모(400m 이상부터 20m 정도까지)의 고분이 밀집해 있고 이처럼 다양한 구성으로 된 고분군은 일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 최대의 고분을 포함하는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은 왕을 중심으로 그 친족과 왕을 보좌한 사람들이 묻힌 묘지로 추정됩니다.

고대왕권이 남긴 거대 유물

고분은 언뜻 보기에 나무로 뒤덮인 숲처럼 보이지만 측량도를 보면 그 분구가 좌우대칭으로 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고분은 원, 삼각, 방형 등의 기하학적인 도형을 조합하여 입체적으로 설계한 거대한 기념건조물입니다. 아울러 후키이시(=즙석)와 토용 등으로 장식함으로써 분구 자체가 장송 의식의 무대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고분 시대는 일본열도에 처음으로 고대왕권이 탄생한 시대로 이것과 권력자의 무덤인 고분의 축조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왕들이 묻힌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은 일본 고분의 대표적인 예로서 고대왕권의 중심인물들의 존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어말로 도심의 오아시스입니다. 아이들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도 소중히 보존해 가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언제까지나 아름다운 고분을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봉사활동으로 고분과 그 주변의 청소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깝고 소중한 고분을 아름다운 상태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정성이 느껴집니다.



닌토쿠릉 수호대가 펼치는 청소활동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자 모임 나카야 씨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옛날 사람들은 분구를 사토야마(=생활과 밀접한 야산)로 이용하거나 해자의 물을 논에 대거나 하면서 오랫동안 고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고대로부터 유구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공존 해 온 고분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그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후루이치 고분군 탐험프로젝트

필드 뮤지엄 토크 사유회 호소미 씨

고분군이 있는 지역에서 살고 싶다고 느끼게 하는 고분 안내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